

## 200周年 開眼奉仕에 參加한 보람



이 상 욱 교수

〈성모병원 안과과장〉

1984年은 우리나라에 天主敎會의 福音의 빛이 전파된지 200돌이 되는 해로서 한국天主敎會에서는 뜻깊은 이해를 맞아서 200週年을 紀念하는 사업의 하나로 지난 83年 5月부터 盲人無料開眼手術사업을 시작했다. 卽, 가난 때문에 手術을 받지 못하여 빛을 못보는 盲人들에게 宗教에 차별을 두지 않고 無料로 開眼手術을 베풀어 빛을 찾아 주는 것으로 “이땅에 빛을”이라는 200週年 紀念의 스로건과 걸맞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0週年을 紀念하여 肉身의 빛을 뜨게 하는 이상적인 慈善사업을 통하여 우리敎會의 本然의 使命인 사랑의 實踐을 더욱 넓게 促求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苦痛받는 불우한 사람과 함께 하는 行事이기에 뜻있는 사업인 것이다. 手術만 받으면 빛을 되찾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때문에 手術받을 機會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光明을 안겨 줄 수 있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開眼사업에 參與하게 해 주신 주님께 感謝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가톨릭병원협회는 한국天主敎會 200週年 紀念事業委員會로 부터 盲人開眼手術事業을 主管해 줄 것을 要請받고 協會산하 성모병원을 비롯한 11개 醫療機關을 無料開眼手術醫療機關으로 指定하고 各 指定病院의 所在地 인근地域을 診療區域으로 分擔하여 83年, 84年 2年間に 천 백眼을 시술목표로 하여 開眼手術事業을 실시하였다.

이 開眼手術사업을 主管하는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開眼手術실시계획에 따라 성모병원은 강남 성모병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居住하는 盲人患者의 開眼手術을 分擔하고 우리 성모병원이 83年에 47眼, 84年에 86眼을 手術하여 133眼의 手術實績을 올렸고 全國적으로 11개 指定醫療機關에서 1,100眼을 시술하여 전체 手術目標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기간중 11개 指定 醫療機關이 手術申請을 받고 病室과 醫療陣의 손부족으로 아직 手術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우 영세민 失明者가 全國에 4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11월에 소집된 天主敎敎會議 秋季總會에서는 이들 불우영세민 400명 모두에게 開眼手術을 베풀기로 決定함에 따라 이 開眼手術事業은 85年 10月까지 연장 실시하게 되어 開眼手術을 申請한 전체 盲人에게 빛을 찾아 주게 되어 환자들의 기쁨은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醫療陣도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같이 하면서 보람있는 開眼奉仕에 계속 參與할 것을 다짐한다.

빛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얼마전 開眼奉仕를 위한 慈善모임에서 暗黑의 世界에서 每日을 보내야 하는 앞 못보는 분의 쓰라림과 不便을 잠시나마 맛보자는 뜻으로 모임도 중 몇분 동안 방안의 불을 끈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짧은 時間이나마 어둠속에서 지낸것도 담담한 것을 생각할 때 暗黑에서 一生을 지내야 되는 그분들의 心情과 괴로움은 오죽하랴. 죽음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슬픔을 가져오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아픈 상처도 차차 가시게 되나 家庭에 앞 못보는 사람이 있을 때 本人의 不幸은 말할 것도 없고 家族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

람에게도 언제까지 그 不幸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 어떤 사회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80%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俗談에 “몸이 千兩에 눈이 九百兩”이라는 말도 과히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번 盲人無料開眼手術의 對象疾患은 白內障, 綠內障 및 角膜疾患등이다. 수술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내장은 검은 동자가 우유빛으로 뿌옇게 보이며 두눈에 오는 수가 많지만 한눈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백내장은 60세 이상 老人層에 많아서 老人性白內障이라고 하며 그밖에 糖尿病 같은 全身的인 疾患때 흔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糖尿病患者는 특히 白內障이 생겼는지 검사를 자주 받아보는 것이 좋다. 白內障이 進行하여 일단 심한 視力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혼탁된 水晶體를 除去하여 빛이 通過할 수 있도록 해주는 手術이 必要하다.

綠內障이란 눈속의 壓力이 上昇되어 視神經이 損傷, 視野의 범위에 異常이 생기는 疾患이다. 手術을 통해서 눈속의 壓力을 正常的으로 환원시켜 주면 다시 視力을 回復할 수 있다. 角膜疾患이란 外部의 빛을 맨 처음 받아들여 屈折시켜 주는 角膜에 이상이 생겨 視力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상이 생긴 角膜을 除去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 角膜이나 프라스틱으로 만든 人工角膜으로 交替시켜 주면 視力을 되찾을 수 있는데 기증된 眼球의 수효가 극히 적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手術을 받고나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린애 같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 그리고 읽고 싶었던 聖經을 다시 자기 눈으로 보고 읽는 모습을 볼때, 목소리만 들었던 첫 孫子의 얼굴을 보고 기뻐 필뿔 뛰는 모습을 볼때, 手術을 담당할 우리도 그들과 같이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기에 手術에 앞서 充分한 檢査와 完전무결한 여건하에 手術, 治療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은 結果를 얻기 위하여 手術에 임할 때에는 마치 自己의 父母兄弟의 눈을 手術하는 것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能力을 集中하여 最善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1984年 1月 4日 始務式이

1984年 1月 4日 始務式이 끝나고 새해 第 1號로 手術을 받은 李景信씨 (50세, 서울 신당

동)는 “手術받던 날 밤은 온통 초조감속에서 지새웠습니다.” 하며 手術結果에 대하여 궁금해 한다. 다음날 오전 10時경 빛과 어둠의 기로에서 긴장되어 있는 그의 眼帶를 푸는 순간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先生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소리친다. “새 삶을 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수술해 주신 先生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글이나 말로써 어찌 다 表現할 수 있을까? 40餘年을 暗黑속에서 살아온 그는 3살때 뇌막염 후유증으로 白內障에 탈구증까지 겹쳐 視力을 잃기 시작 9살부터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5月 6日 教皇聖下에서 집전한 여의도 諡聖式 미사에서 第1 讀書를 奉讀하는 榮光을 누리기도 했다. 다시 正常的인 生活을 할 수 있게 된 그는 通院治療를 받으면서 “失明해 보지 못한 사람은 빛을 되찾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아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10年前 부인과 사별하고 아들과 삭월세방에서 어렵게 지내온 그는 “저희들의 手術혜택은 모두 가난한 信者들의 정성어린 誠金덕택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죽기전에 안구를 기증할 생각입니다.” 하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開眼手術受惠者들끼리 光明會를 만들어 失明한 사람을 돕는 뜻있는 사업을 펴 나가겠다면서 東奔西走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이런일도 있었다. 한눈이 白內障으로 失明한 권일행씨는 공사장에서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임시공원으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한눈밖에 못보는 관계로 거리감이 무디어 作業中 失手로 鐵片이 눈에 박혀 두눈 모두 失明하였다. 病中에 있는 妻와 살길이 막연하여 안타까워 슬픈나날을 보내던 중 우리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고 1.0의 훌륭한 視力을 되찾게 되어 다시 공사장에서 일하게 되어 기뻐하며 감사하다던 그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렇듯 한국天主教會 200週年紀念無料開眼手術은 지금 많은 이들의 찬사와 信者들의 後援속에서 알차고 보람있는 結實을 맺어가고 있다. 누구나 하나 소외됨이 없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1985年 새해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불우 失明者 모두에게 빛을 찾아주기로 한 天主教會에 感謝하며 기쁜 마음으로 奉仕할 것을 다짐한다.